

INSURANCE

FRIENDLY

KFPA

고객과 함께 하는 세계일류 방재전문기관



친애하는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2013년은 한국화재보험협회(KFPA)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KFPA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신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FPA는 1970년대 초 대연각호텔 화재, 시민회관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고 화재안전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방재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 활동을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화재안전기준 제정, 방재시험연구원 운영, 방재기술 선도 등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KFPA가 걸어온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 습니다. 3단계에 걸친 화재보험 풀 해체, IMF 관리 체제, 관련기관의 방재 업무영역 확대 등 크고 작은 시련들은 우리 사회가 KFPA에게 변화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실화책임이 중과실에서 경과실로 바뀌고 제조물책임 소송증가 등으로 화재원인·피해액 조사결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게 변화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흔 살이 된 KFPA는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Insurance Friendly KFPA로서 “고객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 방재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고객 Needs에 따른 특수건물 안전 점검 및 언더라이팅 지원 강화, ▲풍수재 위험관리 서비스 실시, ▲과학적 화재조사 확대,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역점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KFPA는 비전 달성을 위해 열정, 창의, 인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융복합기술의 선도, 고객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룩할 것입니다.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다시 맨다는 해현갱장(解弦更張)처럼 지금까지의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KFPA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열정을 모두 이끌어내어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 큰 도전에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40년 동안 변함없이 KFPA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KFPA 이사장

이 기 영